



소식지 제27호(2000년 4월)

발행인: 최재용, 편집인: 김종복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학부내
전화: 02-961-0892/0211 전송: 02-961-0892
e-mail: jongbok@khu.ac.kr, URL: <http://society.kordic.re.kr/~ksli>

㉔ 2000년 한국언어정보학회 학술대회 논문 모집

한국언어정보학회에서는 오는 6월 29(목)-30(금)일 양일간 2000년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위원회/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에 발표할 논문을 모집하고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아래의 논문 제출 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논문의 작성 시에 논문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논문발표와 홍보 및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90년대 후반 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정보포장이론”과 “초점”에 관련된 Session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많은 논문 제출을 바랍니다.

- 다 음 -

- 개최 일시: 2000년 6월 29일(목) - 30일(금)
- 개최 장소: 조선대학교
- 논문 제출 분야: 언어학 제 분야 (이론언어학 및 전산언어학)
- 발표자 신청:

1. 논문초록 제출: 2000년 5월 20일 (토요일)까지 A4 용지 1쪽 내외로
전자우편으로 제출 (저자명, 소속 기관, 연락처(e-mail, 주소, 연락 전화) 명기)
2. 최종 논문 (camera ready) 제출 마감: 6월 17일(토)
3. 논문 제출처: 120-9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34번지

명지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홍민표 교수

TEL: 02-300-1751

E-Mail:

mphong@wh.myongji.ac.kr

학술대회 조직위원/프로그램 위원: 이남근(공동 위원장, 조선대), 이민행(공동 위원장, 연세대),

최재웅(고려대), 김종복(경희대), 남승호 (서울대), 채희락(한국외대), 홍민표(명지대), 조세연(호남대), 이경재(생성문법 총무), 박기성(부산대), 임지룡(경북대)

㉔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언어와 정보]의 논문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고하실 원고는 자유로운 스타일로 하시며, 아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투고방법: 전자우편 ynoling@hanbat.chungnam.ac.kr

일반우편: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언어학과 노용균

투고기한: 상시 접수 (4권 1호에 실기 위해서는 2000년 4월 22일까지)

[언어와 정보]는 신속한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 세계적 수준의 논문 평, 국제적 가독성이 있는 포스트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져 세계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언어학 학술지입니다.

㉕ 회원 가입 및 학회비 납부 안내

2000년도 학회 연회비는 정회원 20,000원, 준회원 10,000원이며, 평생회비는 200,000원입니다. 학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평생회비 납부**에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학회와 협력관계가 있는 생성문법학회, 한국언어과학회, 현대문법학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정회원 10,000원의 특혜가 있습니다. 연회비는 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한국언어정보학회 (김종복), 계좌번호: 012336 -0071907, 경희대 서울우체국).

㉖ 2000년 회비 납부 현황:

- **평생회원 연회비:** 최재웅(고려대), 김경학(수원대), 윤애선(부산대), 최규련(연세대), 최기선(과학기술원), 이영현(조선대), 김종복(경희대) 김경예 (한경대) 이상 8명
- **정회원 연회비:** 강범모(고려대), 강우순(경희대), 곽은주(세종대), 김용범(광운대), 김종현(서강대), 남승호(서울대), 노용균(충남대), 문승철(항공대), 염재일(홍익대), 유은정(서울대), 윤영은(이화여대), 윤재학(경희대), 이예식(경북대), 이익환(연세대), 이해운(서울대), 장석진(서울대), 정대호(한양대), 정재현(충북대), 정찬(동서대), 조세연(호남대), 채희락(한국외대), 홍민표(명지대), 홍성룡(남서울대), 이상 23명
- **준회원 연회비:** 구유선(충남대), 박병선(고려대), 송현석(서울대), 육청민(충남대), 이진옥, 위혜경(연세대), 채숙희(서울대), 최종주(조선대) 이상 8명

㉗ 구구조문법연구회 소식

지난 4월 1일 구구조문법연구회가 알차고 성황리에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모임은 '논항구조'를 주제로 4월 29일 조선대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㉞ 초점연구 세미나 안내

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초점현상(focus)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4월 8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학기 두 세 차례 더 모여서 서로의 관심사항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 학회 월례발표에서도 초점을 주제로한 논문이 세 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초점 소그룹에서는 학회 월례발표와도 연계하여, 여러가지 논점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위주로 모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초점 워크샵의 다음 모임 일정은 4/22(토), 5/13(토)입니다. 초점 연구동향에 대한 추가 발표 및 exhaustivity에 대한 논의, 초점의 음성적 특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초점 현상과 관련하여 화자들의 직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 등이 모임의 토론 주제로 잡혀 있습니다. 혹 개인적으로 소장하신 초점 관련 참고 자료가 있다면 학회 홈페이지 토론방에 게시하여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㉟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 세미나 개최

- 연사: M. Nakayama 교수(Ohio State Univ.)
- 제목: "Similarity Interference and Scrambling in Japanese"
- 때: 4월 27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서울대 14동 3층 세미나실
- 주최: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소장: 이정민)

㊱ 한국인지언어학 학술대회 논문 모집

한국인지과학회에서 2000년 5월 27일 (토요일) 학술대회를 위해 관련분야 논문을 모집합니다. 제출 마감은 4월 22일 (토요일)이며 제출처는 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학과 자연어처리연구실. E-Mail: inji2000@nlprep.sogang.ac.kr 입니다.

㊲ 회원소식

▶ 채명희선생님께서 언어정보학회 회원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부터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㊳ 발표논문초록

문장내 센터링 개념을 이용한 영어의 복합문 분석

(An Analysis of English Complex Sentences in terms of Intrasentential Centering)

채숙희 (서울대)

초기의 센터링이론 연구는 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언어자료를 이용하여 이 이론이 설명하는 바를 제시하거나 검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근래에는 실제 언어자료를 근거로 이론의 설명력을 검증하는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의 걸림돌 중의 하나는 기존의 센터링이론에서는 하나의 발화를 하나의 단문과 동일시하고 한 문장이 여러 개의 절로 구성된 복합문의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언어자료를 분석해보면 대다수의 문장이 두 개 이상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센터링이론에서 복합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실제 언어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실제 수집한 언어자료를 통하여 영어의 복합문에 있어서 센터의 갱신(center-update)이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자료의 분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첫 번째는 Kameyama(1998)가 제시한 문장내 센터링(intrasentential centering)의 가설을 받아들여, 이 가설이 실제 언어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증해보는 것이며, 두 번째는 복합문 내의 센터갱신에 있어서 연결어의 역할을 조명하는 것이다.

Kameyama(1998)는 복합문 내의 센터갱신의 기본단위를 시제절로 설정하고, 센터갱신을 위한 화용론적 구조를 순차구조와 계층구조로 대별하였다. 순차구조에 해당하는 복합문으로는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등위절과 부사적인 종속절을 가정하였고, 계층구조에 해당하는 복합문으로는 명사적인 종속절을 가정하였다. 첫 번째 작업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받아들여, 소설과 신문기사로부터 수집한 언어자료를 센터갱신의 기본단위인 시제절 단위로 나누고 인접하는 시제절 사이의 센터갱신을 각 복합문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순차구조를 갖는 복합문과 계층구조를 갖는 복합문 사이에는 뒤따르는 발화의 센터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각각의 구조에 해당하는 복합문 유형도 타당하게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사적 종속절의 경우는 센터갱신을 위한 화용론적 구조가 통사적인 구조와는 달리 순차구조로 설정되었는데, 인접하는 발화들과 연관지어 볼 때 이러한 가설은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다.

두 번째의 분석에서는, 복합문이 내포하는 연결어(connectives)의 종류가 문장내 센터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문코퍼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결어가 들어 있는 언어자료를 각 연결어 별로 일정 수 수집하여 센터갱신시 전이(transition) 유형을 정리하고 비교해보았다. 다양한 의미관계로 연결된 부사적 종속절의 경우, 이유나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어를 가진 경우에 센터가 유지되는 경향이 높았으며 양보나 조건, 장소를 나타내는 연결어를 가진 경우에는 센터가 유지되는 경향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합문 분석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대명사의 선행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약 기반의 형태통사론의 수립 (Toward a Constraint-Based Morphosyntax (CBMS))

-- 짧은('안') 부정문의 분석 --

박병수(경희대)

제약은 크게 어휘 제약(lexical constraints)과 구문 제약(constructional constraints)으로 나눌 수 있다. 어

휘 제약이란 개별 어휘에 가해지는 특정 제약이고 구문 제약이란 특정 구문의 특별한 특성이다. 어휘 제약으로써 단문의 통사 기술이 완성되고 이에 구문 제약이 가세하여 복문의 분석을 결정한다. 그런데 한국어 부정문은 짧은 것(short form negation)이든 긴 것(long form negation)이든 어휘 제약으로써 모두 해결된다. 긴 것은 동사 '않다'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짧은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란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나온 '안'의 통사적 위치에 대한 견해는 대강 세 가지이다. 첫째, 전통적인 변형적 도출 방식이 있다. 이는 추상적 심층 구조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안'을 표면의 제 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김종복(1995a,b)는 이 방식의 여러 가지 통사적, 의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을 접두사로 다루는 어휘주의적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조세연(1999)은 어휘주의적 입장을 취하되 '안'을 접두사가 아니라 부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형적 도출 방식은 논거가 약하다는 것이 이미 많이 지적되었으므로 (박병수 1997, 김종복 1995a,b, 김수연 1993, 안희돈 1991 등), 여기서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고, 접두사 방식과 부사 방식의 쟁점을 검토하고 제약 중심의 형태통사론의 수립에 공헌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접두사 방식은 '안'이 통사적으로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통사적 요소인 동사의 일부라는 설명이다. 이 분석에서는, 예컨대, '안'이 '가다' 동사의 접두사가 되어 '가다'도 한 단어이고 '안가다'도 한 단어가 된다. 이 접두사 방식의 강력한 논거는 '*안 알다', '*안 모르다', '*안 있다', '*안 없다'에서 보는 것과 같은 어휘 차단(lexical blocking)의 현상에서 온다. 즉 이런 제약은 순전히 형태론적인 현상이어서 통사적으로 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사 방식은 '난 그걸 안 알고 싶다', '그는 지금 집에 안 있다' 등 과 같은 환경에서 '안 알다'나 '안 있다'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것은 어휘 차단의 경우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휘 차단 현상에 입각한 '안'의 접두사론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다. 접두사 방식이 '안 알고 싶다'와 같은 딜레마에서 탈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알고 싶다'와 같은 복합 동사를 역시 한 단어라고 분석하는 것이다. '알고 싶다'가 한 단어라면 거기에 '안'이라는 접두사가 붙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그러나 복합 동사를 한 단어로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 통사론적 특성이 무엇인가? 등의 문제들이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 '안 있다'의 문제는 '있다'의 다의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없다'의 반대말의 뜻과 '머물다'의 뜻이 있는데, '*안 있다'가 차단되는 것은 '없다'의 반대말일 경우다. '안 머물다'에 해당하는 별도의 어휘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안 머물다'의 뜻을 가진 '안 있다'는 차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로써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해결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동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형 위계(type hierarchy)를 수립하고 각 유형의 유형 제약을 세밀히 밝혀야 한다. 즉 한국어 형태통사론이 완성되어야 한다.

김수연 1993. The Arg Feature Parameter and Its Role in the Acquisition of Korean Negation. Thrainsson et al (eds.), *Harvard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김종복 1995a. *The Grammar of Negation: A Lexicalist, Constraint-Based Approach*. Stanford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김종복 1995b. On the Existence of NegP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ol. 6.

박병수 1997 어휘 형성 과정과 제약: 제약 기반의 형태통사론 시론. 언어 연구 15. 경희대.

- 조세연 1999. Non-Constituent Coordination and Semantics. 언어 연구 15. 경희대
- 안희돈 1991. *Light Verbs, VP-Movement, negation and Clausal Architecture in Korean and English*. University of Wisconsin Doctoral Dissertation.
- Sells, Peter 1995. Korean and Japanese Morphology from a Lexicalist Perspective. *Linguistic Inquiry* 26.

관념적 담화표지

구유선(충남대)

담화 표지(discourse markers)는 *oh, well, so, now*와 같은 표현들로서 현재의 발화와 전의 발화의 연속적 관계(sequential relation)를 나타내고 담화 응집성(coherence)에 기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화용론적인 입장에서 특히 Stubbs, Schourup, Blakemore, Schiffrin 등을 중심으로 제 이론을 비교 검토해 보고, 담화 표지 전반에 적용되는 담화 응집성 모델을 제시한 후 그 언어학적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지식표현언어, 즉 Sowa의 「개념구조론」을 도입해서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형식화하는 모형을 만들어 보겠다.

개념 도식은 Charles Sanders Peirce의 존재도식(existential graph)과 인공지능의 의미망(semantic network)에 바탕을 둔 논리 체계이다. 이 체계의 목적은 논리적으로 정확하고, 인간이 읽기 쉽고, 컴퓨터화 하기 쉬운 형태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언어에 직접 사상(mapping)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도식은 컴퓨터 지향적인 형식화(computer-oriented formalism)를 자연언어로 혹은 그 반대로 번역하는 데 필요한 중간 언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도식 표시이기 때문에, 읽기 쉽지만 형식적인 모형과 명세화의 역할도 할 수 있다.

표지의 의미와 담화 내에서의 연속적인 관계의 해석에 대해 Schiffrin(1987)은 표지가 이야기의 내용을 통해 제공되는 잠재적 의미로부터 의미관계를 선택하고(select) 그 의미를 나타낸다고(display) 제안한다. 담화로 적형성을 가지려면 담화로서의 제약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의미적인 응집성으로 불린다. 담화표지의 어휘목록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가 없었다. 그러므로 관념적 담화표지들이 나타내는 문맥을 연결하는 개념관계를 찾고 영어에서 그런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표지들을 찾아내는 것이 본 논문의 요지이다.

본 논문은 영어 담화표지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개념구조이론의 개념도식으로 기술함으로써 의미론적 표지사용에 관해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념적 담화표지가 나타내는 개념관계를 크게 첨가, 선택, 대조, 조건, 인과, 시간, 요약, 동격으로 구분한다. 담화표지를 적절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의미론뿐만 아니라 화용론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하나의 통합 이론이 필요하고 개념 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한 본 논문의 분류 및 기술이 이런 요구를 충족시킨다.

한국언어정보학회

<2000학년도 제1학기 연구 발표 계획>

장소: 대우재단 빌딩 (서울역 앞 대우 빌딩 뒤) 세미나실

날짜	시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3/18 (토)	기획 9:30-10:40	위 혜경 (연세대)	"협초점의 한정성 (Definiteness of Narrow Focus)"	윤 재학 (경희대)
	휴식 (10분)			
	일반 10:50-11:30	이 진옥 (충남대)	"영어 명사 은유의 개념구조"	
	일반 11:30-12:10	윤 애선 (부산대)	"멀티미디어 다국어 사전 개발 도구 DiET (Dictionary Editor)"	
4/15 (토)	기획 9:30-10:40	채 숙희 (서울대)	"An Analysis of English Complex Sentences in terms of Intrasentential Centering"	이 장송 (육사)
	일반 10:40-11:20	박 병수 (경희대)	제약 기반의 형태통사론의 수립 (Toward a Constraint-Based Morphosyntax (CBMS)) -- 짧은('안') 부정문의 분석 --	
	휴식 (10분)			
	기획 11:30-12:40	구 유선 (충남대)	"관념적 담화표지"	
5/20 (토)	일반 9:30-10:10	윤 영은 (이화여대)	"고정함축 개념의 모순성 및 고정함축과 전체의 상치(相値) 가능성"	김 종복 (경희대)
	일반 10:10-10:50	이정민/김현주 (서울대)	Incremental Theme, Telicity and Monotonicity Revisited-Evidence from Gradual and Other Predicates in Korean	
	휴식 (10분)			
	일반 11:00-11:40	최 규련 (연세대)	"국어 초점사 `이미': 초점사 기능과 상 기능 사이"	
	일반 11:40-12:20	염 재일 (홍익대)	"Reasoning with Generic Sentences"	
6/17 (토)	일반 9:30-10:10	김 종현 (서강대)	"Focus and Information States in Korean Echo Questions"	홍 민표 (명지대)
	일반 10:10-10:50	전 영철 (경남대)	"Definiteness Effect in Korean (Existential Sentences)"	
	휴식 (10분)			
	일반 11:00-11:40	류 병래 (충남대)	"위치와 공간에 관한 지식의 의미론적 접근"	
	일반 11:40-12:20	이 예식 (경북대)	TBA	

(OHP가 필요하신 발표자께서는 미리 총무에게 연락해주시오.)

한국언어정보학회 구구조문법연구회

<2000년도 1학기 워크샵일정>

장소: 대우재단 및 조선대학교

날 짜	장 소/ 시 간	발표자	주 제	토론자
4월 1일 (토)	대우재단 12:30 - 3:00	정찬, 유은정	Word Order	이남근, 조세연
4월 29일 (토)	조선대학교 2: 00 - 5:00	류병래, 채희락	Argument Structure And Linking	박효명, 노용균
6월 3일 (토)	대우재단 12:30 - 3:00	임경섭, 채명희	Case	이기용, 박병수
7월 1일(토)	조선대학교 2:00- 5: 00	이민행, 김종복	Information Packaging in HPSG	장석진, 김용범

주제 및 Background Reading

박사학위 논문을 제외한 논문들은 모두 한권으로 제본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간사 김유신 (leri@nms.kyunghee.ac.kr), 961-02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